

그룹 방탄소년단의 일곱 멤버(RM·진·슈가·제이홉·지민·뷔·정국)가 각자 개인 SNS 계정의 문을 열었다. 2013년 데뷔 이후 그룹의 SNS로 전 세계 팬덤과 소통해왔지만 개인 계정을 연 것은 처음이다. 글로벌 팬덤을 과시하듯 순식간에 모두 수천만 팔로어를 끌어들이었다. 그만큼 화제와 함께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제이홉, 피임 장려 콘돔 무늬 셔츠 화제



제이홉이 콘돔 무늬가 새겨진 셔츠를 입은 모습. 뉴스스

제이홉이 최근 안전하고 올바른 피임을 권하는 메시지를 담은 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으로 화제를 모았다. 제이홉은 8일 자신의 SNS에 피임기구인 콘돔 무늬의 셔츠를 입은 모습을 담아 사진으로 올렸다. 셔츠는 미국의 디자이너 알렉스 제임스의 브랜드 플레저스와 영국 소매업체 END가 올바른 피임을 장려하기 위해 선보인 것이다. END 측은 "올바른 피임을 주제로 다양한 그래픽과 패턴을 프린팅했다"면서 "안전하고 긍정적이며 책임감 있는 성관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제이홉은 이 같은 의미를 담은 셔츠로 메시지에 공감을 표시한 셈이다.

당초 제이홉은 사진을 공개한 직후 일부 누리꾼들로부터 "선정적이다"거나 "더럽다"는 등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셔츠와 콘돔 무늬의 의미가 알려지면서 찬사를 받고 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뷔, 제니 SNS 팔로했다 취소해 곤혹



뷔(사진)는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의 SNS를 팔로했다 취소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옛날 팬심'으로 상처를 입었다. 제니 역시 방탄소년단과 뷔의 해외 팬들로부터 난데없는 비난을 받으며 곤혹스러움을 감당해야 했다.

뷔는 6일 개인 SNS 계정을 개설한 뒤 잇달아 새벽 제니의 계정을 팔로했다 취소했다. 그때까지 뷔의 팔로계정은 그룹 공식 SNS와 동료 멤버들의 것 뿐이었다. 그런 그가 제니의 SNS를 팔로하자 전 세계 팬덤의 시선이 집중됐다. 하지만 뷔는 곧바로 제니의 계정을 언팔로했다. 제니의 계정이 자동추천돼 팔로했다는 우회적인 '해명'이 뒤따랐다. 이에 일부 해외 팬들이 제니의 SNS에 몰려가 악플을 달기 시작했다. 심지어 구토하는 얼굴 모습과 욕설 이모티콘 등을 달기까지 했다. 또 이번 SNS 상황과 관련한 해명을 제니에게 요구하는 팬들도 있었다.

뷔와 제니 모두 곤혹스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가요계에서는 "해프닝이라고 하기에선 일부 극성 팬들의 옛날 팬심 사냥이 지나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여수 기자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donga.com

구본길·장성민·강한 '노는브로2' 형제들의 수다

“반고정 께찬 건 본길이 형 덕분이죠”

‘브로징어’ 특집서 완벽 토크플레이 환상 케미로 구본길과 아이들 별명 ‘인생 이야기 나눌 동료 생겨 행복 금메달·시즌3 두 토끼 잡고 싶어’



강한(복슬레이)·장성민(릭비)·구본길(벤싱)이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E채널 예능프로그램 ‘노는브로2’를 통해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 이들은 실제 형제와도 같은 우정을 다지며 서로를 응원한다.

“스포츠정신으로 뭉친 우리는 브라더!”

팬싱스타 구본길(32), 럭비 국가대표 장성민(29), 한국 복슬레이의 ‘젊은 피’ 강한(23)이 “형제”가 됐다. 종목도, 나이도 다른 이들을 모이게 한 무대는 현재 방영 중인 E채널 예능프로그램 ‘노는브로2’.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스타들이 나선 무대에서 서로를 “한눈에 알아본” 이들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우애를 다져가고 있다.

8일 서울 상암동 E채널 사옥에 모여 서로 형제의 ‘케미’(호흡)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이대로 새벽까지 떠들 수 있다”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기 바쁘다. 이들은 “막내인 유도 김민중(21)이 없어 아쉽다”면서도 “방송 활동을 떠나 인생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동료가 생겨 행복하다”며 웃었다.

●장성민·강한 “구본길 형 최고!”

이들은 지난달 14일과 22일 방영한 ‘브로징어 게임’ 특집에서 화려한 토크플레이로 ‘구본길과 아이들’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고정 출연자 구본길을 제외하고 럭비 등 각기 다른 특집에 게스트로 출연해온 이들은 최근 인기를 등에 업고 ‘반(半)고정’ 자리를 꿰찼다. 장성민은 “모두 구본길 형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녹화를 끝내고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곧바로 전화를 걸어와 ‘오늘 참 잘했다’고 다독여줘 감동했어요. 이른바 ‘비인기종목’에 몸담으면서

느끼는 공감대가 정말 커요. 형이 평소에도 ‘스스로를 각자 종목의 시작점으로 여기고 열심히 올라가라’며 조언해주고, 형을 보면서 럭비를 알리겠다는 목표의식이 더욱 뚜렷해졌죠.”

보육원에서 자란 강한은 보호종료아동으로서 살아온 인생사를 ‘노는브로2’를 통해 공개했다. 그는 “이후 비슷한 처지의 동생들이 ‘힘을 얻었다’는 연락을 해와 뿌듯했다”고 말했다.

“형들과 제작진이 방송환경에 낯선 저를 편안하게 대해줬어요. 그래서 마음이 열렸나 봐요. 제 이야기를 편하게 풀어놓은 덕분에 화제가 많이 됐어요. 저 같은 보호종료아동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어 감사하죠. (구)본길 형의 ‘언제든 연락해라’는 말을 듣고 가족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형들의 존재가 든든합니다.”

이들의 구심점인 구본길은 올해 여름 2020 도쿄올림픽에서 펜싱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을 딴 이후 각종 방송프로그램

의 러브콜을 받으며 동생들을 살뜰히 챙겼다. 리더십이 남다른 그는 “동생들이 착하고 귀여운 덕분”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단지 동생들에게 질문 하나 더 해주고, 편하게 대해주는 정도예요. 동생들도 저마다 종목을 대표하는 심정일 겁니다. 저도 펜싱을 알리겠다는 목표로 방송 욕심이 많아 보인다는 편견에도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비인기종목의 설움을 잘 알기에 빠르게 뽀뽀 뭉친 것 같아요.”

●“방향은 달라도 항상 함께”

‘노는브로2’로 이름을 알린 장성민과 강한도 “최근 방송 출연 제안이 늘었다”고 말했다. 국내 럭비 역사상 최초로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장성민은 “은퇴를 준비하는 시점에 좋은 기회를 얻었다”고 돌아섰다.

“올림픽 이후 선수생활을 마무리하기 위해 배달대행 관련 사업을 새로 시작했어요. 방송 활동도 병행하며 ‘인생

2막’을 잘 열었죠. 다양한 종목을 다루는 ‘노는브로2’ 덕분에 럭비가 조명을 받게 돼 기쁘요. 앞으로도 럭비 알리기에 최선을 다해야죠.”

내년 2월 한국체육대학을 졸업하는 강한도 “진정한 ‘독립’을 앞두고 형들을 만나 좋다”며 웃었다. 생일인 1월1일 “형들과 미역국을 함께 먹고 싶다”는 바람도 드러냈다.

“앞으로 사회 선배인 형들에게 조언을 많이 구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노는브로2’ 첫 출연료를 기부하기로 했어요. 시즌3에서는 고정 출연도 욕심낼래요.”

이들 들은 만행 구본길의 한 마디가 압권이다. “이제 동생들도 치고 올라오니 긴장되네요. 내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시즌3 자리도 지켜내겠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하하하!”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무섭게 크는 몬스타엑스 ‘美친다’

내일 미국서 두 번째 정규앨범 공개 14일부터 4개 도시 ‘징글볼 투어’도

‘케이(K)팝 신홍 강자’ 몬스타엑스가 미국시장을 정면 겨냥하며 입지를 확장해나간다.

최근 국내에서 새 앨범을 발표하고 자체 최고 초동 판매 기록(9일간 20만장)을 경신하며 “한 단계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은 그룹 몬스타엑스가 곧바로 미국에서도 앨범을 선보이며 영역을 넓힌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해외 활동에 나서지 못한 아쉬움을 씻어내고 2년 만에 직접 팬들과 만날 계획이다.

이들은 11일(이하 한국시간) 미국에서 두 번째 정규앨범 ‘더 드림링’(THE DREAMING)을 공개한다. 앨범에는 미국에서 앞서 선보인 싱글 ‘원 데이’를 비롯해 ‘유 프라블럼’, ‘블레임 미’, ‘어바웃 라스트 나잇’, ‘시크릿’ 등 10곡을 수록한다. 이어 14일 필라델피아를 시작으로 워싱턴D.C, 애틀랜타, 마이애미 등 현지 4개 도시에서 펼쳐지는 ‘2021 징글볼 투어’에 참여한다.



2015년 데뷔해 6년 동안 글로벌 팬덤을 구축하며 급성장한 그룹 몬스타엑스가 이달 앨범과 영화 등을 통해 미국시장으로 향한다. 사진제공 |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징글볼 투어’는 미국 라디오 방송국 아이하트라디오가 주최하는 연말 콘서트 무대이다.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이 로스앤젤레스 더 포럼에서 열린 ‘징글볼 투어’ 오프닝 무대를 꾸며 화제를 모았다. 이번 투어에

는 에드 시런, 도자캣, 릴 나스 엑스, 더 키드 라로이 등 전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가 무대에 오르고 있다.

몬스타엑스는 2018년 케이팝 그룹 최초로 ‘징글볼 투어’에 합류해 미국 6개 도시 무대에 섰다. 올해까지 세 번째로 무대에 나서게 된 이들의 명성을 재확인하게 한다.

영화로도 팬들과 만난다. 각 멤버들의 성장 이야기를 담은 영화 ‘몬스타엑스:더 드림링’(MONSTA X:THE DREAMING)을 8일 국내에서 개봉한 데 이어 해외 70여 개국에서도 선보인다. 또 내년 1월20일 미국 뉴욕에서 출발해 2월까지 캐나다를 훑으며 투어를 열고 팬들에게 무대를 선사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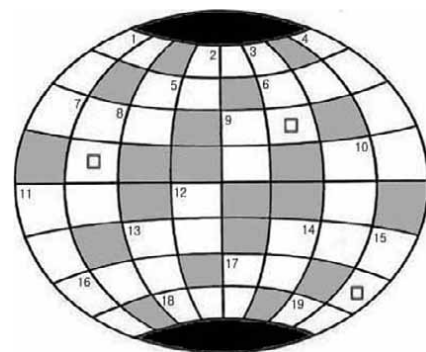
■ 스토쿠문제

Grid for the Stok problem with some numbers filled in.

■ 스토쿠정답

Grid for the Stok problem showing the correct solution.

■ 날말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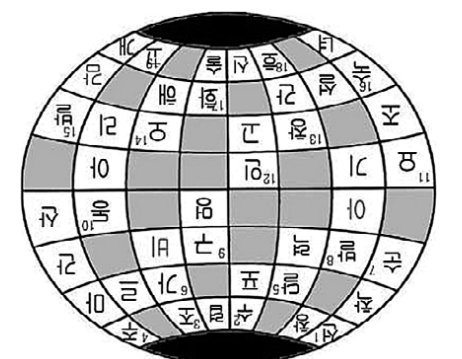
■가로열쇠 01.물가에 다리처럼 만들어진 배가 닿을 수 있게 한 곳. 02.사냥이 허가된 새. 03.한 달 이상이 되는 동안. 04.이마로부터 정수리까지의 머리털을 양쪽으로 가른 금. 05.순간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능력. 06.등불이 많아 밤에도 대낮처럼

밝은 곳. 07.집이나 마을 부근에 있는 작은 산이나 언덕. 08.시작기를 면할 정도로 음식을 조금 먹음. 09.물품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건물. 10.양푹하게 탄전을 부림의 비유. 11.잔치 때 음식을 만드는 곳. 12.뽀뽀를 그치고 뽀. 13.몸을 보호하기 위한 무술. 14.산·언덕을 넘어 다니게 된 비탈진 곳.

■세로열쇠 01.먼저 와 닿는 차례. 02.헛된 결과. 03.조개의 껍데기. 04.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 05.1년 중의 달, 날, 요일, 이십사절기, 행사일 따위를 날짜에 따라 적어 놓은 것. 06.씩이나 순이 트는 시기. 07.파넛거나 뿔어진 자리. 08.크거나 긴 물건의 한 부분. 09.품위 있고 정숙한 여

■날말정답

단어 이야기: 날말을 모두 풀 다음 칸을 이어놓으면 나라 이름이 됩니다.



플레이 스토어 - 경품광고퀴즈, 날마다운세, 매직스도쿠